

한전, 중기 펀드 2000억 조성 이전기업 지원

산학연 연구개발 연 100억
에너지 신산업 유치·인재 육성
중기 대표 초청 사업설명회

빛가람 도시에 동자를 둔 한국전력공사가 우리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본격 지원에 나선다. 한전은 광주·전남지역 산학연 연구개발 사업에 연간 100억원을 투자하고, 중소기업 펀드 2000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한전은 28일 나주 본사에서 지역 중소기업 유관 단체장과 중소기업 대표를 초청해 가진 간담회를 열고, 지역 중소기업 협력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한전은 중소기업과의 협력연구개발사업을 위해 10억원을 한도로 연구개발비의 85%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청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사업에도 10억원 한도로 연구비의 75%까지 정부와 한전이 공동지원할 방침이다. 한전은 이전 기업의 기술개발 및 신제품·신기술 현장 조기 사용을 위해 중소기업 개발 제품과 기술에 대해서는 현장 테스트 기회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 산학연 연구개발사업에 연간 1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중소기업 육성펀드 2000억원을 조성해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28일 한전 사옥에서 열린 '한전, 빛가람 시대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R&D 및 판로개척 지원 사업설명회'에서 조환익 한전 사장(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지역 발전을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한정 제공>

한전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에 에너지 신산업 유망 기업, 연구소, 전력 기자재, ICT 분야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미래 유망기술 발굴과 인재 육성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주민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복합시설 추진 계획도 밝혔다. 한전은 태양광발전사업과 도서지역 마이크로그리드(MG) 도입, 시민 힐링공간인 '에너지 파크' 조성 등도 추진한다. 또 오는 5월 개최

할 예정인 '빛가람 동반성장 페스티벌'을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전력 산업 주체들의 '만남의 장'으로 만들고 동시에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지역축제로 육성하기로 했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한전은 지역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지원정책을 개발하고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는 따뜻한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는 한전 등 16개 기관이 이전하면서 지난해 땅값이 전년도보다 4.46%나

급증했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지난해 전국 땅값 1.96% 상승, '08년 이후 최대치' 자료에 따르면 나주는 혁신도시 기관 이전으로 인근지역 주거 및 상업용지의 지가가 상승하면 대구 달성(4.71%), 세종시(4.53%), 제주 서귀포(4.48%)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땅값이 많이 오른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나주의 지가 변동률은 2011년 0.54%, 2013년 1.23%, 2013년 1.01%였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61.58 (+9.18)
- ▼ 금리 (국고채 3년) 2.00% (-0.03)
- ▲ 코스닥 594.39 (+6.55)
- ▲ 환율 (USD) 1084.50원 (+4.70)

이색 열대과일 안방차지

아보카도·망고스틴 등 수입량 늘고 판매 증가
아메모야도 최근 관심

과거 구색 맞추기 용으로 과일 판매대에 소량 진열됐던 이색 열대 과일들이 소비가 크게 늘면서 최근 매장 안방을 차지하고 있다. 체리와 망고는 이미 대형마트 과일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품목으로 자리 잡았고 최근에는 아보카도, 망고스틴 등 국내 소비자들에게 생소했던 과일 판매까지 급증하는 추세다.

28일 유통업체와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수입된 아보카도는 487만 달러 어치로 전년도보다 57.5% 늘었다. 주로 미국과 뉴질랜드로부터 수입하는 아보카도는 열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불포화지방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칼륨과 비타민D 풍부하다. 소스나 샐러드 재료로 주로 쓰이며, 캘리포니아를 등 각국 요리에 다양하게 사용된다.

열대 과일인 망고스틴 수입액은 작년 306만3000달러로 85.6% 증가했고, 과일의 황제라 불리는 두리안 수입액도 52만1000달러로 전년도의 3배 수준으로 늘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이마트에서도 지난해 아보카도(57%), 망고스틴(124%), 블루베리(92.4%) 등 이색 수입 과일 매출이 급증했다. 이처럼 과거 선물용 과일 바구니에 들어갔던 이색 과일의 단독 매출이 늘자 업체들은 희귀 과일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마트는 2013년 선물세트용으로 소량 들여왔던 용과가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자 지난해 용과 도입 물량을 늘리고 가격을 낮춰 전년도보다 4배 이상 늘어난 매출을 올렸다. 이마트는 지난 21일까지 전국 전 점포에서 베트남 직송 열대과일 용과를 시중가 대비 30% 가량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기도 했다.

광주신세계백화점 식품관에서는 아열대과일 중의 귀족으로 불리는 아메모야를 최근 판매하기 시작했다.

슈가애플과 체리모아의 교잡종인 아메모야는 울퉁불퉁한 겉모습(중국에서는 부처님 머리모양이라해서 '석가'라고도 불림)과는 달리 맛이 달콤하고 비타민C가 풍부한 열대과일로 대만이 주산지이지만 제주도에서도 재배되고 있다. 생산량이 많지 않은 매우 희소한 과일로 무게는 개당 1kg 정도이며 가격은 3만원선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전남 농수산물 홍콩서 먹힐 겁니다"

홍콩무역발전국, 2년만에
광주서 80업체 참가 세미나

"홍콩은 광주·전남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판매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홍콩을 주목해주세요."

홍콩무역발전국(HKTDC)이 28일 광주시 서구 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에서 지역 기업 80개 업체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해외시장개척 성공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홍콩무역발전국이 광주에서 시장개척 세미나를 연 것은 2년 만이다.

세미나 강연자로 나선 맹청신 수석 컨설턴트는 "한류 바람을 타고, 한국 문화의 열기가 높은 홍콩은 한국에 대해 다양한 부문에서 관심이 높다"며 "정정 농수산물이 주로 생산되는 광

주·전남지역의 수출품이 인기를 얻을 가능성이 많다"고 언급했다. 이어 "홍콩은 한국의 전 세계 2번째의 최대 교역국"이라며 "이 지역의 주력 생산품인 식품과 전자, 자동차, 광산업 등이 수출 돌파구를 찾을 경우 광주·전남의 대 중국 수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콩무역발전국에 따르면 광주지역의 대 중국 수출규모(홍콩 포함)는 한국 전체 수출량의 8.82%를 차지한다.

이날 참여한 지역 기업들은 홍콩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관심을 보였으며 광주·전남중소기업청 등 수출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홍콩무역발전국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 3곳 행복주택 2150가구 건립

광주·양동시장·효천역 인근

광주지역 3곳에 행복주택 2150가구가 들어선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자 공급되는 공공 임대주택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광주는 광주도시공사와 LH 등이 신청한 3곳, 2150가구가 모두 사업승인이 완료됐다. 광주도시공사가 광주역(1만6000㎡) 700가구, 양동시장 인근(7418㎡) 500가구를 맡아 시행하며 LH는 효천역 인근(3만4000㎡)에 950가구를 건립한다. 주택면적은 국토부

가 고시한 45㎡를 기준으로 10평~15평 수준에서 지어진다. 이들 3곳의 부지는 주변에 젊은층이 밀집하는 여건을 갖춰 선정됐다. 광주역의 경우 전남대와 동강대, 일신방직 공장 등이 해당된다. 양동시장 부근은 광주교대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청년층을 흡수할 것으로 보여며 효천역은 광주대, 송원대, 송암일반산업 등이 선정 기준이 됐다.

정부는 행복주택의 임대료가 시세의 60~80% 선에서 결정되도록 할 방침이며 오는 2017년까지 14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전문건설협 광주사회 정중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사회가 28일 오전 11시 신양파크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대표회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광주시 서구청(정장 임우진)과 광주재능기부센터(대표 하상웅)에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관계 공무원, 협회발전 유공회원사 등 37명도 포상했다. 또 협회는 2015 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확정 의결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광주·전남 소비 심리지수 3개월 연속 기준치 밑돌아

1월 CSI 99로 전월과 동일

1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 심리지수가 3개월 연속 기준치를 밑돌았다.

28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1월중 소비자동향지수(CSI)는 99로 전월과 동일했지만 3개월 연속 기준치(100)를 하회했다.

개별지수가 100보다 높은 경우 긍정적으로 응답한 가구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가구수보다 많음을, 100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반대 의미를 나타낸다.

현재생활형편CSI는 89로 전월대비 1포인트, 생활형편전망CSI도 93로 전월대비 1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가계수

입전망CSI는 97로 전월대비 2포인트, 소비자출전망CSI도 106으로 전월대비 각각 2포인트 떨어졌다.

현재경기판단CSI는 70으로 전월대비 1포인트 상승, 향후경기전망CSI도 82로 전월대비 1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취업기회전망CSI는 81로 전월대비 2포인트, 금융수준전망CSI는 86으로 전월대비 2포인트 각각 올랐다.

현재가계저축CSI는 85로 전월대비 4포인트 하락한 반면 가계저축전망CSI는 91로 전월대비 1포인트 상승했다. 현재가계부채CSI는 107로 전월대비 2포인트 올랐으며 가계부채전망CSI도 104로 1포인트 올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남녀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신프리모

www.golochina.co.kr 233-9582 (중) 구오말리

2015년 신입생 모집
상해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경제무역학과

홈페이지 www.suibe.co.kr

2015학년도 9월학기 입학생 모집요강

모집 대상 ▶ 고등학교 졸업자(201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검정고시 가능

모집 기간 ▶ 2015년 2월 28일까지 (중국어 미학습자 신청가능)

모집 인원 ▶ 30명

수강 기간 ▶ 2015년 3월~8월 (6개월) (1일 6시간, 주 30시간, 총 720시간 이수)

강의 내용 ▶ 중국유학준비과정 중국어 집중훈련 수료 후 중국대학 입학

성공 중국유학 내신 NO! 수능 NO!

입학상담문의 **GOChina** 중국 전문 번역강사

www.golochina.co.kr 233-9582 (중) 구오말리